

임상간호교육의 일실험방법의 효과측정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행정전공

<지도 : 최정훈 교수>

최 연 순

<차례>

I. 서 론

- A. 연구의 목적
- B. 문제의 제시
- C. 가 설
- D. 연구의 한계

II. 문헌 연구

III. 연구 절차

- A. 대상자
- B. 연구기간
- C. 도구 및 방법

IV. 조사 결과

- A. 초임산부의 사회 교육 및 직업적 배경
- B. 산전진찰과 유방간호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
 - 1. 산전진찰
 - 2. 임신기간중 산전진찰을 받은 횟수에 관한 사항
 - 3. 산전진찰을 처음 받은 월수
- C. 유방간호에 대한 일반 사항
- D. 유두간호에 대한 조사
 - 1. 유두간호의 실시 여부
 - 2. 유두간호 방법에 대한 조사
- E. 유방과 유두에 관하여
 - 1. 유방과 유두의 형태 조사
 - 2. 유방을 임산부 브라지아로 지지했는가에 관한 조사
 - 3. 유방질환에 관한 조사
- F. 육아법에 습득한 자원에 대한 조사
- G. 수유시 생리적 감정적 변화에 대한 조사

- 1. 수유시 생리적 변화

- 2. 수유중 감정적 변화에 대한 조사

H. 분만후 유방의 울혈과 압통에 관한 조사

- 1. 분만후 제 1일의 울혈과 압통에 관한 조사
- 2. 분만후 제 2일의 울혈과 압통에 관한 조사
- 3. 분만후 제 3일의 울혈과 압통에 관한 조사

V. 논의 및 결론

A. 논 의

- 1. 초임산부의 사회 교육 및 직업적 배경과 유방간호에 대한 조사
- 2. 산전진찰과 유방간호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
- 3. 유방간호에 대한 조사
- 4. 유두간호에 대한 조사
- 5. 유방과 유두의 모양, 유방의 지지 및 질환에 관한 조사
- 6. 육아법에 관한 조사
- 7. 수유중 산모가 느끼는 생리적 감정적 변화에 관한 조사
- 8. 분만후 울혈과 압통의 비교 조사

B. 결 론

C. 제 언

부 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산과간호를 학습 하는데 있어서 임상실습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학생은 이미 배웠던 지식을 임상실습에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임산부에게 필요로 하는 전인간호(Comprehensive Nursing Care)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임산부에게 산후에 생리적으로 생기는 유방의 울혈과 압통으로 인하여 모아의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이를 제거할수 있다면 건강증진이 더욱 잘 되리라 생각되어 학생이 실습을 하는 동안 실력과 능력을 길러 주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논 하려는 것은 임산부의 산전의 유방간호가 산후에 생기는 유방의 압통과 울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조사를 하여 산전 유방간호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산전진찰 및 간호를 받은 임산부는 유방간호를 시행하였을 것이다.

둘째, 산전에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산부는 산후에 유방의 압통이 적을 것이다.

세째, 산전에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산부는 산후에 유방의 울혈이 적을 것이다.

방법 : 이렇게 3 가지 가설을 검증하여 보기 위하여 1971년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정상분만을 한 초임산부만을 대상으로 62명중 유방의 울혈과 압통에 대하여 산과 전문간호원 2명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즉 유두의 정중선이 되는 흉위를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토록 하였으며 젖맛을 수와 체온 상승과 액와의 임파선 팽대 등을 참조하였다. 분만 당일에는 울혈과 압통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나 분만후 제1일에는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 총 62명중 28명은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였으며 34명은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결과 : 첫째 가설에서 “산전진찰과 간호를 받은 임산부는 산전유방간호를 시행하였을 것이다.”라는 항목에서 유방간호를 실행한 집단은 모두 산전진찰을 받았음으로 첫째 가설은 검증되었다.

둘째 가설에서 “산전유방간호를 시행한 집단은 산후 유방의 압통이 적을 것이다.”라는 항목에서는 유방의 압통이 산전유방간호를 시행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분만후 제1일에는 적었음으로 이는 뒷받침되었으나 분만후 제2일, 제3일에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세째 가설, “산전에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산부는 산후에 유방의 울혈이 적을 것이다.”의 항목은 분만 당일부터 4일동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세째 가설은 부정되었다.

I. 서 론

A. 연구 목적

산과 간호학 학습에 있어서 임상 실습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임상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발전시키고 이미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간호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은 물론이며 학생들의 정신적 안정과 지도력을 발전시키기으로서 임산부와 신생아를 간호함에 요구되는 인격 형성을 조장하도록 시도함에 있다. 그러므로 임산부를 중심한 그의 가족 또는 의료요원과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이해깊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과 의사소통 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은 일은 산과 간호학 학습의 궁극적 목표 즉, 임산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전인 간호(Comprehensive nursing care)를 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교육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중 이 연구에서 강조되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문지 간호원으로서 지도력과 환자 교육 방법을 발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임산부들이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기와 어머니를 만족하게 하는

것인데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이상 완전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곧 모유 수유는 아기에게 정서와 육체를 전부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에 모유 수유를 부인하고 수유시키는 태도가 불안하다면 아기는 안정과 평화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초임산부에게 유방에 관한 특별 지도와 새로 탄생할 아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도를 시작할 때는 그 초임산부의 철학, 계획, 태도, 양육 능력을 먼저 알아서 고려해야 하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뜻을 함축시킨 모자보건을 위한 유방 간호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임상간호 교육의 실험방법으로써 임산부의 산전간호에 중요한 일부인 유방 간호를 실시한 임산부의 분만후 효과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모자보건의 증진과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슈미트(M. Schmitt)에 의하면 임산부는 산전유방 간호를 실시함으로써 산후에 유방의 울혈(engorement)과 압통(throbbing Pain)이 감소되어 모유 수유시 지장이 적으며 심리적으로도 의의가 깊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 성격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아기와 어머니와의 정서에도 깊은 단련이 형성된다고 하며 “유방은 사랑의 선물이나.”(The Breast is a gift of love)라고 하였다.

미국 조지아주 보건성에서 출판된 “어머니와 아이”(Mother and Baby Book)²에는 “모유의 수유는 어머니의 어려운 근심과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육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안정은 모자보건에 중요한 역할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진보된 임상 간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입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분만후에 임산부에게 유방의 울혈과 압통이 생기는 것은 흔히 보는 일이다. 이는 산후 2~3일에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유선(milk Duct)에 유즙(milk)이 푸로락틴(Prolactin)호르몬에 의해서 축만되며 혈액 순환이 증가되어 생기는 것이다. 위이덴바하(E. Wiedenbach)³에 의하면 산전에 유방 간호를 시행하면 산후에 생기는 유방의 울혈과 압통이 비교적 감소되어 수유에 지장이 적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우리나라 임산부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분만하는 초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전에 유방 간호를 시행하지 않은 임산부의 집단과 산전에 유방 간호를 시행한 집단 간에 산후 유방의 울혈과 압통이 생기는 정도를 비교 연구 하였다. 그 결과를 측정하여 모자보건을 위한 간호는 물론 교육 방법의 유익한 좌표가 되리라는 가정하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임상에서 임산부의 생리와 심리를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인 간호의 방법을 모색하고

둘째 : 산전 유방 간호로 인하여 모자보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좌표를 만들고자 한다.

셋째 :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발달된 임상 간호술을 시행하게 하는데 있다.

B. 문제의 제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검토하여 효과를 측정하려고 한다.

1. 분만(Delivery)전에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산부의 유방 유두의 상태

1) Madeline H.Schmitt; Superiority of Breast-Feeding Fact or Fanc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70, No.7 p.1488.

2) Georg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tlanta; Georgia mother and baby book, p.11.

3) Ernestine Wiedenbach; Family-Centered maternity nursing, (New York, G.P.Putnam's sons 1958) p.164.

2. 분만전에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임산부의 유방, 유두 상태
3. 임산부의 교육 정도와 산전 유방 간호 실시와의 비율 비교
4.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게 되는 영향 인들과의 관계
5. 산전 유방 간호가 산후에 유방 울혈과 압통에 미치는 영향
6.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시 임신부에게 생기는 생리적 감정적 변화
7. 산전 진찰과 유방 간호와의 관계
8.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한 횟수와 사용한 도구, 물품 방법에 관한 조사
9. 육아법을 알게 된 경로 조사
10. 임신중 유방의 지지에 관한 조사 등이다.

C. 가 설

첫째, 산전 진찰을 받은 임산부는 유방 간호를 시행하였을 것이다.

둘째, 산전에 유방 간호를 실시한 임산부는 산후에 유방의 압통이 적을 것이다.

세째, 산전에 유방 간호를 실시한 임산부는 산후에 유방의 울혈이 적을 것이다.

D.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대상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상 분만을 한 초임산부에 한했다.

둘째, 모유 시간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았다.

세째, 산후에 유방 간호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다.

네째, 모유 유즙 분비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

II. 문헌 연구

초임산부의 산전 유방 간호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윗츠프패트릭(Fitzpatrick)⁴의 두 사람은 임신 중 유방 간호를 강조 하였는데 임산부의 유두 주위 조직은 유연하므로 구열(craks)이 쉽게 생기며, 또한 구열이 생긴 조직을 그대로 두면 감염(Infection)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누와 온수로 유방(breast)과 유두를 청결히 씻어서 건조시키고 수건으로 닦아서 단련시키면 수유에 지장이 적다고 했다.

지이젤(E. Ziegel)⁵과 반브랄콤(Van Blarcom)⁶은 함몰형유두(Inverted nipple)를 가진 임산부는 모유 수유를 성공시키려면 임신 5개월부터 유두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맞싸지(massage)를 해야 하며 최적의 방법은 하루에 2-3회 실시함이 좋다고 하였다.

브라운(E.J. Browne)⁷은 유방간호(breast Care)를 임신 6개월부터 시작하면 모유 수유에 지장이 적다고 하였으며 특히 유두가 함몰형이면 시지와 엄지로 눌러서 빼내는 운동을 매일 하피 손에 라노린(Lanolin)같은 기름류를 사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유두에서 분비물(유즙)이 흘러서 딱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수와 비누로 깨끗이 유두를 닦아내고 청결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Fitzpatrick, Eastman, Reeder; maternity nursing. (11th edition) (Philadelphia, J.R.Lippincott Company 1966) p.158.

5), 6) E.Ziegl, Van Blarcom; Obstetric Nursing, (fifth edi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4) p.131.

7) F.J.Browne & J.C.McClure Browne; Antenatal & Postnatal Care(9th edition), (London, J. & A. Churchill Ltd. 1960). pp.52-53.

수유를 시키는 산모의 급성유증(염증)은 그 원인이 유선에 유즙이 침체해서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월러(H. Waller)⁸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산전에 유즙이 자유롭게 흐르게 두면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젖을 손으로 짜는 방법은 유두를 향해서 유방을 붙잡고 유두쪽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고 둘째로 엄지와 시지로 유륜(areola)부분을 눌러서 젖을 짜내도록 하며 산전 마지막 6—8 주 사이에 젖을 짜내는 유방 간호를 매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보고하였다.

마일스(M. Myles)⁹는 유방 간호는 혈액순환을 도움기 위해서 유방과 유두를 깨끗이 씻고 유두가 압박되지 않도록 브라자(brassiere)를 사용하라고 했다. 유방 맞싸지와 유즙 배출에 관해서는 임신 34 주 전후에 유동(milk duct)을 비워 주면 산후에 유방의 울혈의 빈도가 적다고한 것은 월러(H. Waller)¹⁰를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 그리고 유방 간호는 가능한한 간단해야 하며 만일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고 산모들이 느끼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한 이상의 효과를 얻지 못할때는 모유 수유가 가치가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방 간호 실시법은 손과 유방에 기름을 바르고 윤활하게 하여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유방을 붙잡고 유두 방향으로 끌어 내리게 한다. 손가락과 엄지를 유륜주위에 놓고 유두(ampullae)을 눌러 비우게 한다. 유두산호 특히 압혈형 유두는 유두의 위치가 피부보다 낮게 있으며 이를 유방의 피부 위로 돌출되게 하는데 많은 난관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때로 유두가 평편(flat nipple)할 때 “울위치”(woolwich)라는 플라스틱(plastic) 제품인 기구를 브라자 속에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유두가 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두를 튼튼하게 단련시켜야 하며 그러므로써 마찰에 익숙토록 하여 신생아가 빨게 될때도 재지지 않게 대비시키는 것이다. 매일 유두를 맞싸지하고 유두를 빼내는 동작을 하여 신축성을 유지시키고 비누와 물로 닦아내서 청결히 하라고 하였다. 상피세포의 딱지나 초유의 덩개가 유두주위에 붙어있지 않게 하며 부착이 되었을 때는 기름을 발라서 제거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라놀린(Lanolin) 같은 기름을 1 주에 2 회 정도 바르면 좋다고 하였다.

사르토(Sister J. Sarto)¹¹의 논문에 인용된 로비(Roby)의 연구에서는 1962년 성 메리병원(St. Mary's Hospital)에서 산전에 유방의 준비와 산후에 모유 수유를 개인별로 지도한 효과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것을 인용하였던 바 모유 수유 성공 방법으로 산전에 유방간호 준비도 분만전 6 주부터 외래진찰소에 임신부 교실을 마련하여 유방과 유즙에 관한 해부 생리, 매일의 초유배출법 등을 지도하였으며 유방의 청결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 결과 그 효과측정에서 산후에 유방간호를 실시하였던 산모의 유방의 울혈과 압통이 적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산전 유방간호와 산후유방간호도 실시하지 않았던 임신부의 울혈과 압통의 빈도는 컸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임신부는 분만후 즉시 모유 수유가 어려웠으며 본의 아니게 일찍 유즙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것을 인용한 것이었다.

위이덴바하(E. Wiedenbach)¹²에 의하면 산전간호의 일부인 유방간호는 임신기간중 계속해서 흥미가 유지되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유방의 지지(support)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브라자(Brassire) 착용에 관하여 즉 땀의 흡수가 잘 되고 모양이 있으며 착용해서 몸의 상반신에 착용할 위치 등을 말하였다. 초유(colostrum)는 임신기간중 계속해서 흐르게 하도록 두며 이는 산후에 모유의 풍족함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유즙 배출법에 관하여는 임신부의 유방 맞싸

8) F.J.Browne & J.C.McClure Browne; 전제서, p.52.

9) Margaret Myles; A textbook for midwives, (Edinburgh and London E&S.Livingstone Ltd. 1961) p.517.

10) M. Myles; 상제서, p.517.

11) Sister Joseph Sarto; Breast Feeding, Preparation,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3:60. Dec. 1963.

12) Ernestine Wiedenbach; 전제서, p.164.

지를 하여 혈액순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초유의 배출이 잘 되도록 분만전에 유두 근육에 탄력과 신축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준비품으로는 수건을 펴서 무릎 위에 놓고 의자에 반듯이 앉아 손에 기름이나 크림을 바르고 솜(cotton ball)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유방 마사지법은 손 하나는 유방의 윗 부분에 올려 놓고 다른 손은 아랫 부분에 두어 힘을 안배하여 힘의 방향을 유두 쪽으로 하여 쓸어 내리도록 하였다. 즉 유륜(areola)을 향하여 쓸어내리는데 유두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연히 내려가도록 한다. 이 운동은 1회에 10—20번 시행하며 초유 배출법으로는 한손으로는 유방을 지지하고 다른 손으로는 유륜 주위조직을 붙들고 즉 시지는 밑에 있고 엄지손가락은 위에 놓아 유륜을 붙들고 안으로 깊숙히 압력을 가하는 운동을 교대로하여 힘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모유 수유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도우는 과정이며 산후 출혈과 입동이 경감 된다고 하였다. 이스트만(Eastman)¹³은 임신중 특히 유방간호를 실시하는 것은 유두를 단련시킬 목적이며 그림으로써 유두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모유수유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Ⅲ. 연구 절차

A. 대상자

세프란스(Severance)병원에 입원하여 정상분만을 한 초임산부 만을 대상으로하여 산전에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과 산전에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간에 조사를 하였는데 그 수의 비는 오른쪽 표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수

산전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	산전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	계
26	34	62

B. 연구 기간

1971년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40일간을 자료수집 하였으며 1971년 11월 20일로 본 논문을 완성하였다.

C. 도구 및 방법

연구자는 전문직 간호원 2명(현 산과간호에 10년 이상 경력자)을 질문서(부록참조)의 내용에 따라 지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질문서를 가지고 입원해 있는 초임산부와 면담케 하였다. 이들 초임산부는 모두 분만이 끝나고 입원실에 돌아와 최소 8—10시간 휴식과 수면을 취한 후에 면담케 하였으며 유방의 울혈을 측정기 위해서 산모를 침상에서 일어나 앉게 하고 줄자로 임신부의 유두의 경중선이 되는 흉위를 측정케 하였다. 또한 울혈의 도(경중)를 측정할 때는 산모의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체온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은 수유시간과 야간간호시간, 회진시간 등 바쁜 시간을 피한 오전 11시를 택하였다.

압통을 측정할 때는 측정자가 손으로 산모의 유방을 압박해 봄으로써 산모의 반응 즉 산모의 동통에 대한 표현을 구별하여 조사했으며 젖망울(Caked-breasts)의 수와 액와의 입파선 팽대 유무를 파악하게 하여 경중을 정하는데 참조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입원기간 4일동안을 계속 측정하였다. 이때 수유시간이나 산후 유방간호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산후의 생리적 감정적 변화에 따르는 유즙 분동사항에 대해서는 퇴원하는 날, 즉 입원 제 4일째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며칠간의 경험을 얻은 뒤에 답변을 받도록 하였다. 자료처리에 있어서는 백분율과 카이

13) Eastman, H. H. L. Man; Obstetrics(12th edition).,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Inc.). p.348.

자승법(X^2)을 사용했으며 연구기간중 이상분만인 산모, 즉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나 임신중독 중에 걸린 산모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가이슬러(N.J. geissler)¹⁴가 연구발표한 내용에서는 유방의 울혈의 도를 측정키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실험용으로 사용하여 성공적이었다고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 울혈측정기구의 구입 곤란으로 인하여 절차를 사용했음을 밝혀 둔다.

IV. 조사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인 초임산부들을 입원해 있는 동안 면담하여 얻은 자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초임산부의 사회 교육 및 직업적 배경

연구 대상자 62명중 산전에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임산부는 34명, 산전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산부는 28명이었나. 이들의 연령 분포는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임산부에서는 26~28세 집단이 53.94%(18인) 가장 많고 다음으로 23~25세까지는 23.58%(8인), 29~31세가 20.59%(7인), 32~35세는 2.94%(1인)의 순위였다.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산부의 연령 분포를 보면 26~28세 집단이 46.43%(13인)로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29~31세 집단에 있어서는 25%(7인), 23~25세 집단은 17.85%(5인), 32~35세 집단은 10.72%(3인)로 각각 순위를 나타냈다.

교육별 분포를 보면 산전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대학 출신이 50%(17인)로 제일 높았으며 중·고등학교 출신이 35.29%(12인), 국민학교 출신은 14.71%(5인)의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전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에서는 대학 출신이 64.29%(18인), 중·고등학교 출신이 35.71%(10인), 국민학교 출신은 없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가정주부가 88.23%(30인), 교사 5.88%(2인), 공무원 2.93%(1인), 아나운서 2.93%(1인)이었으며 산전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에서는 가정주부 71.43%(20인), 교사 14.28%(4인), 간호원 10.72%(3인), 그리고 약사 3.57%(1인)의 분포를 보여 주었다. 그다음 퇴원후에 아기를 누가 기르는가 하는데 관

<표 2> 초임산부의 사회 교육 및 직업적 배경

특	성	유방간호를 실시 치 않은 집단		유방간호를 실 시한 집단	
		수	%	·	%
연령	23—25	8	23.58	5	17.85
	26—28	18	53.94	13	46.43
	29—31	7	20.59	7	25.00
	32—35	1	2.94	3	10.72
		34		28	
교육	대 학 교	17	50.00	18	64.29
	중고등학교	12	35.29	10	35.71
	국 민 학 교	5	14.71	0	0
		34		28	
직업	무 직	30	88.23	20	71.43
	교 사	2	5.88	4	14.28
	공 무 원	1	2.93	0	0
	간 호 원	0	0	3	10.72
	약 사	0	0	1	3.57
	어 나 운 서	1	2.93	0	0
		34		28	
	신생아양육자				
신생아양육자	아기어머니	30	88.23	20	71.43
	시 어 머 니	1	2.93	5	17.86
	친정어머니	2	5.88	1	3.57
	친 척	1	2.93	0	0
	가 정 부	1	2.93	2	7.14

14) Natalie Jean Geissler, An instrument used to measure breast engorgement, Nursing Research, Vol. 16 No.2. Spring 1967.

하여는 조사한 결과 산전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는 아기 어머니 자신이 기론다에 88.23%(30인)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친정어머니 5.88%(2인), 시어머니 2.93%(1인), 친척 2.93%(1인), 그리고 가정부 2.93%(1인)의 순위였다.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에서는 아기 어머니가 기론다에 71.43%(20인), 시어머니 17.86%(5인), 가정부 7.14%(2인), 친정 어머니 3.57%(1인)의 순위로 나타났다.

B. 산전 진찰과 유방간호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

1. 산전 진찰

<표 3> 산전 진찰과 유방간호와의 관계

산 전 진 찰 유 무	유방간호를 실시않한 집단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	
	수	%	수	%
산전 진찰을 받았다.	29	85.29	28	100
산전 진찰을 안 받았다.	5	14.71	0	0
	34	100.00	28	100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 85.29%(29인)가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14.71%(5인)이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비하여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에 있어서는 100%가 산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임신 기간중 산전 진찰을 받은 횟수에 관한 사항

산전 진찰 횟수를 조사한 결과 산전 유방간호를 시행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는 44.84%(13인)에 있어서는 9~12회 받은 것으로 가장 높은 율을 차지 하였으며 27.59%(8인)에 있어서는 5~8회, 20.67%(6인)은 1~4회, 6.9%(2인)은 13~16회의 순위를 보여 주었다. 이에 비하여 유방간호를 시행한 집단에 있어서는 53.55%(15인)의 9~12회가 수위이며 그 다음 순위는 다음과 같다. 25%(7인) 5~8회, 14.8%(4인) 1~4회, 7.14%(2인) 13~16회이었다.

3. 산전 진찰을 처음 시작한 월수

산전 진찰은 임신 몇 개월부터 시작하였는 가 하는데 대한 분포를 보면 산전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는 2~3개월부터 시작했다는 집단이 65.5%(19인)로 최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4~5개월이 13.79%(4인) 6~7개월이 10.35%(3인), 8~9개월째는 10.35%(3인)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에 있어서는 2~3개월이 60.72%(17인)로 최고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 4~5개월이 21.43%(6인), 6~7개월이 10.71%(3인), 8~9개월이 7.14%(2인)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 4> 산전 진찰 회수

회 수	유방간호 실시 않은 집단		실시한 집단	
	수	%	수	%
1-4	6	20.67	4	14.30
5-8	8	27.59	7	25.00
9-12	13	44.84	15	53.56
13-16	2	6.9	2	7.14
계	29	100.00	28	100.00

<표 5> 산전 진찰을 시작한 달

월 수	유방간호를 실 시 않은 집단		실시한 집단	
	수	%	수	%
2-3	19	65.51	17	60.72
4-5	4	13.79	6	21.43
6-7	3	10.35	3	10.71
8-9	3	10.35	2	7.14
계	29		28	

C. 유방간호에 대한 일반 사항

임신 기간동안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신부 28명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제 6 표와 같은

<표 6> 유방간호에 대한 일반사항

유방간호 시작시기	수	%	지도자	수	%	방법	수	%	사용한것	수	%	횟수	%	
2-3개월	7	25	의사	2	7.14	맛짜지	20	71.43	온수	9	32.14	하루1회	24	85.71
4-5 "	5	17.86	조산원	1	3.57	온수점질	9	32.15	냉수	2	7.14	2회	1	3.57
6-7 "	5	17.86	시어머니	3	10.72	냉수점질	3	10.72	수건	8	28.57	주 1회	3	10.72
8-9 "	6	21.42	친정어머니	4	14.29	유두돌려 빼기	5	17.85	비누	1	3.57			
무응답 "	5	17.86	남편	1	3.57				크림	2	7.14			
			친지	4	14.29				알콜	2	7.14			
			산모자신	11	39.29				봉산	2	7.14			
			책	6	21.43				olive유	5	17.85			
									달걀	1	3.57			
									손안	6	21.43			
									무응답	5	17.85			

결과를 얻었다.

전항의 표시된 것을 비추어 보면 유방간호를 시작한 시기에 있어서 2~3개월부터 시작했다는 집단이 25%(7인), 8~9개월이 21.42%(6인), 4~5개월이 17.86%(5인), 6~7개월이 17.86%(5인)이었으며 무응답이 17.86%(5인)이었다. 또한 유방간호를 하도록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 누군가라는 물음에 있어서 자신이 알아서 했다가 39.29%(11인), 책에서 배웠다가 21.43%(6인),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가 14.29%(4인), 친지를 통해서는 14.29%(4인), 시어머니에게서가 10.72%(3인), 의사에게서가 7.14%(2인), 조산원에게서는 3.57%(1인), 남편에게서가 3.57%(1인) 이상과 같은 순위를 보였다.

유방간호의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맛짜지(massage)를 한 집단이 71.43%(20인)로 최고위를 차지했으며 온수 점질을 한 집단이 32.15%(9인), 유두 돌려 빼기가 17.85%(5인), 냉수 점질이 10.72%(3인), 무응답이 7.14%(2인)의 순위였다. 유방간호시에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온수 사용이 32.14%(9인)로 가장 높은 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수건을 사용했다가 28.57%(8인), 손으로만 했다가 21.43%(6인), 올리브유 18.85%(5인), 냉수, 크림, 알쿨, 봉산이 각각 7.14%(2인), 비누와 달갈이 각각 3.57%(1인)이었다.

D. 유두 간호에 대한 조사

1. 유두 간호의 실시 여부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 28명중 특별히 유두간호를 시행한 임신부는 67.86%(19인)이었고 시행하지 않은 집단은 32.14%(9인)이었다.

2. 유두 간호 방법에 대한 조사

유두 간호의 방법은 유두를 엄지와 시지 사이에 놓고 빙빙 돌려서 빼는 식을 사용한 임신부는 89.47%(17인)이었고 비눗물과 알쿨을 사용한 임신부는 10.53%(2인)로 나타났다.

<표 7> 유방간호를 한 28명 중 유두간호의 실시 상황

유두간호의 실시 여부	수	%
실시했다.	19	67.86
안했다.	9	32.14
계	28	100.00

<표 8> 유두간호를 실시한 19 명이 사용한 간호법

유 두 간 호 의 종 류	수	%
유두를 엄지와 시지 사이에 놓고 빙빙 돌려서 땀다.	17	89.47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알콜로 닦았다.	2	10.53
계	19	100.00

B. 유방과 유두에 관하여

1. 유방과 유두의 형태 조사(연구자의 관찰을 통하여)

유방의 형태에 있어서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임신부 34 명 가운데 85.29%(29인) 정상형이었고 41.71%(5인)는 처진형이었다.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에서는 정상형이 85.71%(24인)이었고 처진형은 14.29%(4인)로 나타났다.

유두의 모양은 산전 유방 간호를 실행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97.06%(33인)가 정상형이었고 2.94%(1명)은 함몰형으로 나타났다. 산전 유방 간호를 실행한 집단에서는 89.29%(25인)가 정상형이었으며 10.71%(3인)가 함몰형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포를 미루어 보아 유두의 모양이 정상일 경우에 내버려 두고 이상인 경우에 산전 유방 간호를 시도해 본 경향을 엿 볼 수 있다.

2. 유방을 임신부 브라지아로 지지했는가에 관한 조사

<표 10> 유방의 지지에 관한 조사

방 법	유방간호를 실시않은 집단		실시한 집단	
	수	%	수	%
임신부 브라지아 착용했다.	4	11.76	5	17.86
한복을 입은 후 허리띠로 매었다.	2	5.88	1	3.57
보통 브라지아 착용했다.	14	41.18	18	64.29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14	41.18	4	14.29
계	34		28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는 보통 브라지아(BRASSIERE)를 사용했다가 41.18%(14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41.18%(14명)이었는데 비하여 임신부 브라지아 착용이 11.76%(4인), 한복을 입어서 허리띠로 매었다가 5.88%(2명)로 나타났다.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에서는 보통 브라지아 사용이 17.86%(5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14.29%(4인), 한복을 입어서 허리띠로 매었다가 3.57%(1인)의 비율로 나타났다.

3. 유방 질환에 관한 조사

<표 9> 유방과 유두의 모양

	유방간호 실시 않은 집단		실시한 집단	
	수	%	·	%
유방의 모양				
정 상 형	29	85.29	24	85.71
처 진 형	5	14.71	4	14.29
	34	100.00	28	100.00
유두의 모양				
정 상 형	33	97.06	25	89.29
함 몰 형	1	2.94	3	10.71
평 편 형	0	0	0	0
	34	100.00	28	100.00

<표 11> 유방의 질환에 관한 지식과 유방질환의 종류에 관하여

유방질환에 관하여	유방간호 실시않은 집단		실시한 집단	
	수	%	수	%
유방질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25	73.53	25	89.29
몰랐다	9	26.47	3	10.71
	34	100.00	28	100.00
유방질환의 종류에 관하여				
유 종	23	38.33	24	25.37
유 암	18	30.0	23	25.27
혹	8	13.33	19	20.88
유 방 기 형	7	11.67	13	14.29
두 유 기 형	4	6.67	12	13.19

유방 질환에 관하여 지식이 있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는, 알고 있었다가 73.53%(25인)인데 비하여 몰랐었다가 26.47%(9인)이었으며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에 있어서는 알고 있었다가 39.29%(25인), 몰랐었다가 10.71%(3인)의 비율이었다.

초임부가 알고 있었던 유방 질환의 종류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었다.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유종 38.33%(23인), 유암 30.0%(18인), 혹 13.33%(8인), 유방 기형 11.67%(7인), 유두 기형 6.67%(4인)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에서는 유종 26.37%(24인), 유암 25.27%(23인), 혹 20.88%(19인), 유방 기형 14.29%(13인), 유두 기형 13.19%(12인)의 비율을 나타냈다.

F. 육아법을 습득한 자원에 대한 조사

임산부들이 육아법에 관한 지식을 어디서 습득했는지 그 자원을 조사해 본 결과는 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는 육아전서가 32.56%(14인), 여성잡지 20.93%(9인) 어머니나 친지가 20.93%(9인), 학교에서가 18.60%(8인)의 순위로 나타났고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에 있어서는 육아전서 48.65%(18인)로 최고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 학교 27.03%(10인), 여성잡지 10.81%(4인), 어머니나 친지를 통해서가 10.81%(4인)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 12> 육아법의 지식 습득 방법

방 법	유방 간호 실시 않은 집단		실시한 집단	
	수	%	수	%
육 아 전 서	14	32.56	18	48.65
여 성 잡 지	9	20.93	4	10.81
학 교	8	18.60	10	27.03
어머니와 친지	9	20.93	4	10.81
무 응 답	3	6.98	1	2.7

G. 수유시 생리적 감정적 변화에 대한 조사

1. 수유시 생리적 변화

수유중 임산부가 느끼는 생리적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 나타난 것을 보면 생리적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가 54.29%(19인)로 제일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에 수유시 반대편 유방에 전율을 느낀다가 20.00%(7인), 자궁의 수축(산후 등)을 느낀다가 11.43%(4인), 무응답이 11.43%(4인), 수유시 질 분비물이 누워서 수유할 때보다

앉아서 수유하면 더 많아진다가 2.86%(1인)의 순위였다.

<표 13> 수유중의 생리적 변화

생 리 적 변 화	유방 간호 실시 않은 집단		실시한 집단	
	수	%	수	%
자궁의 수축	4	11.43	2	6.67
질외 분비물 증가	1	2.86	1	3.33
반대편 유방의 전율	7	20.00	2	6.67
모르겠다	19	54.29	21	70.00
무응답	4	11.43	4	13.33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에 있어서는 별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가 70.00%(21인), 무응답 13.33%(4인), 자궁의 수축을 느낀다가 6.67%(2인), 수유시 반대편 유방에 전율을 느낀다가 6.67%(2인), 질 분비물 증가가 3.33%(1인)의 순위로 나타났다.

2. 수유시 감정적 변화에 대한 조사

<표 14> 수유중의 감정적 변화

감 정 적 변 화	유방 간호 실시 않은 집단		실시한 집단	
	수	%	수	%
젖을 먹이려던				
평화스럽고 안정된다.	24	51.06	20	42.55
부끄럽고 창피하다.	17	36.17	20	42.55
유방의 모양이 미워질까 두렵다.	1	2.13	1	2.13
무응답	5	10.64	6	12.77

수유시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가 하는 조사에 나타난 것은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는 평화스럽고 안정된다가 51.06%(24인), 부끄럽고 창피스럽다가 36.17%(17인), 무응답이 10.64%(5인), 유방의 모양이 미워질까 두렵다가 2.13%(1인)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에서는 평화스럽고 안정된다가 42.55%(20인), 부끄럽고 창피스럽다가 42.55%(20인), 무응답이 12.77%(6인), 유방의 모양이 미워질까 두렵다가 2.13%(1인)의 비율로 나타났다.

H. 분만후 유방의 울혈과 압통에 관한 조사

분만 당일에는 두 집단간에 아무런 생리적 변화를 볼 수 없었으므로 유방의 울혈이나 압통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1. 분만 제 1일의 울혈과 압통에 관한 조사

<표 15> 산후 제 1일의 유방의 울혈과 압통 조사

울	혈	산전 유방 간 호를 실시하 지 않은 집단	산전 유방 간 호를 실시 한 집단	계	압	통	산전 유방 간 호를 실시하 지 않은 집단	산전 유방 간 호를 실시 한 집단	계
심하다					심하다				
보통이다		6	3	9	보통이다		11	3	14
없다		28	25	53	없다		23	25	43
계		34 $x^2=4.23$	28 $p<0.05$	N=62	계		34 $x^2=0.24$	28 $p>0.05$	N=62

울혈에 있어서는 의의 있는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 압통에 있어서는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2. 분만후 제 2일의 울혈과 압통에 관한 조사

<표 16> 산후 제 2일의 유방의 울혈과 압통 조사

울혈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	계	압통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	계
심하다				심하다			
보통이다	26	20	46	보통이다	27	23	50
없다	8	8	16	없다	7	5	12
계	$x^2=1.50$	$p>0.05$	$N=62$	계	$x^2=0.18$	$p>0.05$	$N=62$

울혈과 압통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만후 제 3일의 울혈과 압통에 관한 조사

<표 17> 분만후 제 3일의 울혈과 압통 조사

울혈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	계	압통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한 집단	계
심하다				심하다			
보통이다	8	5	13	보통이다	9	6	15
없다	22	23	45	없다	21	22	43
계	$x^2=0.65$	$p>0.05$	$N=58$	계	$x^2=0.97$	$p>0.05$	$N=58$

분만후 제 3일에도 울혈과 압통에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후 제 3일에는 산전 유방 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12%(4인)가 퇴원을 하였으므로 측정에서 제외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A. 논의

1. 초임산부의 사회, 교육 및 직업적 배경과 유방간호에 대한 조사

교육별로 구별하였을때 고등교육을 받은 임산부에 있어서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은 타당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교육을 받을수록 임신과 분만에 관한 지식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으로 증명되었다.

아기의 양육자에 관한 조사 : 애기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집단에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과 아울러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사실은 하영수¹⁵⁾의 연구에서의와 같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순위의 영향을 입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아직도 핵가족제도가 아닌 대가족제도임을 말해 주고 있음을 알았다.

15) 하영수 : 한국인 초임산부의 음식 습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연구 논문, 제10집 p.269.

2. 산전진찰과 유방간호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은 거의 다 산전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전진찰은 85.9%(29인)가 받았으면서도 유방간호를 시행 않은 초임산부의 수가 많다는 것도 특기할 점이다. 또한 초임산부는 대개 산전진찰을 거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방간호는 산전진찰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사려되나 산전진찰 횟수가 많은 임산부일수록 산전유방간호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임신에 대해서 지식과 관심이 많을수록 유방간호를 하는 율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산전유방간호를 하지 않은 집단이 산전진찰도 늦게 시작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3. 유방 간호에 대한 조사

지이겔(Erna Ziegel)¹⁶은 임신 5개월부터 유방간호를 실시하라고 주장했으며 브라운(F.J. Brown)¹⁷은 임신 6개월부터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도 제 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신 5—6개월에 제일 많이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은 앞으로 산전간호교육에서 이것을 강조하던 우리나라 임산부들도 산전간호와 유방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많다고 간주된다.

그다음 유방간호를 지도한 인물에 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산전진찰을 받은 집단에 있어서 유방간호의 지도를 의사에게서 받았다는 집단이 71.4%(2명)이었으며 간호원으로부터 받았다는 하나도 없었으며 소산원으로부터 받았다는 3.57%(1명)에 불과했다. 이는 이 결과에 대해 두가지 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문직 간호원의 기능 중에 하나인 환자교육의 시행을 철저히 해야겠으며 산전간호를 간호원이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산전간호에 반드시 유방간호교육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겠다는 점이다. 이 방법에 한가지 방안으로 “어머니 교실”을 설치하여 산전진찰을 받으러 오는 초임산부에게 임산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방간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써 더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책자를 만들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유방간호법에 관하여 제일 많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맛싸지(Massage)가 수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온수찜질, 유두 돌려빼기, 순위인 점으로 보아 이로 위이덴바하(E. Wiedenbach)¹⁸나 지이겔(E. Ziegel)¹⁹이 주장한바와 같았음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사용한 약품은 맛싸지 할 때 손에 기름(오리브유)과 온수로 했다는 점은 위이덴바하(E. Wiedenbach)²⁰가 맛싸지시에는 손에 기름을 바르고 하도록 주장한 바와 같은 점으로 고려된다.

4. 유두간호에 관한 조사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산부중 과반수(67.8%, 14명)가 유두간호도 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89.7%, 17명)이 유두를 엄지와 중지 사이에 넣고 빙빙 돌려서 빼는 식을 택하여 했고 비눗물로 씻고 알콜로 닦아서 말렸다는 임산부는 적었다(10.53%, 2명). 이러한 사실은 핏츠패트릭(E. Fitzpatrick)²⁰과 위이덴바하(E. Wiedenbach)²¹, 마일스(M. Myles)²² 등의 주장과 동일하였음이 나타났다.

5. 유방과 유두의 모양, 유방의 지지 및 질환에 관한 조사

16) Ziegel & Van Blarcom: 전제서, p.131.

17) F.J. Browne & J.C. McClur Browne, 전제서, p.52.

18) Ernestin Wiedenbach; 전제서, p.164.

19) E. Ziegel & Van Blarcom; 전제서, p.131.

20) Fitzpatrick, Eastman, Reeder; 전제서, p.158.

21) E. Wiedenbach; 전제서, p.163.

22) M. Myles; 전제서, p.517.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과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간에 대부분이 정상형 유방과 유두로 나타났는데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신부중 함몰형 유두(Inverted Nipples)가 11% 정도였기 때문에 열심히 유방간호를 하게된 동기가 됐다고 해석된다.

유방의 지지에 관해서는 위이덴바하(E. Wiedenbach)²³의 7가지 임신부용 브라샤 선택법의 장점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본 연구에서는 비임신에 사용하던 브라샤를 착용했음은 외래 진찰소에서 산전진찰을 받을시 유방의 지지에 관해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 브라샤를 착용하지 않은 임신부가 41.18%나 되는 더욱 전문인들의 주의를 요한다. 모셔(C.D Mosher)²⁴에 의하면 유방의 지지는 절대적으로 잘 맞는 브라샤를 착용토록 강조하였으며 핏츠패트릭(E. Fitzpatrick)²⁵은 유방의 지지가 정확하게 되면 유방이 해부학적으로 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동이 제거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본 연구에서 증명되지는 않았다.

유방에 관한 질환 조사

유방의 질환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질병으로 유종, 유암 등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에 관하여는 양 집단이 모두 알고 있었으며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유방기형, 유두기형은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방간호를 더욱 열심히 하게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고려된다.

6. 육아법에 관한 조사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이 육아전서나 학교를 통해서 배웠다는 수가 대다수이라면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육아전서, 학교, 여성잡지 등을 통해서 배웠다가 많았으며 어머니나 친지들과 같은 비전문인에게서 배운 집단이 20.93%임은 고등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육아법도 어머니에게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7. 수유중에 산모가 느끼는 생리적 감정적 변화에 관한 조사

수유중에 자궁의 수축을 느낀다. 즉 산후통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양 집단간에 소수가 느꼈는데 위이덴바하(E. Wiedenbach)²⁶는 수유중 자궁수축은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 한 것을 미루어 보아 본 연구대상자가 초임산부인 까닭에 소수만이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스트만(Eastman)²⁷이 말한 바와 같이 “초산부는 경산부에 비해서 자궁수축 즉 산후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데 대한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질 분비물(Vaginal discharge)에 관하여 수유중에 자궁수축이 있으면 자궁강내에 고인 분비물은 흘러 나오게 마련인데 본 연구에서는 질 분비물의 증가에 관하여 양 집단에서 극소수가 대답했음은 특기할 사실이며 마일스(M. Myles)²⁸에 의하면 일어나 앉아서 움직이면 더 잘 분비물이 배출된다 함은 물리적인 작용으로 사려된다.

한쪽 유방수유시 반대편 유방에 전율을 느낀다는 항목에서는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 20.00%이었으나 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은 극소수가 느꼈다. 이는 산전유방간호와와는 어떤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위이덴바하(E. Wiedenbach)²⁹에 의하면 산후 3—8주 사이에 느낄 수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본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초임산부이었기 때문에 경험도 없었고 유즙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음도 말해주나 유

23) Ernestine Wiedenbach; 전제서, p.164.

24) C.D.Mosher; Personal hygiene for women, (California, StanfordUniversity Press 1928) p.67.

25) E.Fitzpatrick, Eastman, Reeder; 전제서, p.159.

26) Ernestine Wiedenbach; 전제서, p.263.

27) Eastman, Helman; 전제서, pp.503~507.

28) Margaret Myles; 전제서, p.473.

29) E.Wiedenbach; 전제서, p.316.

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 20.00%를 느낀 점은 이 율혈 측정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율혈 측정에서 뚜렷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유즙이 팽만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분에 따라 유즙분비에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지이겔(E. Ziegel)³⁰과 위이덴바하(E. Wiedenbach)³¹에 의하면 임신부의 심리적인 여건 기분여하에 따라서 유즙의 증가와 감소가 있다고 하였음은 본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도 시기적인 문제와 임신부 자신의 느낌에 대한 경험이 알은 탓이 아닌가 사려된다. 그리고 생리적인 변화를 모르겠다라는 항목에서 양 집단이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음은 초유수유의 경험이 적었던 것과 또한 초임산부이었기 때문에 비교될만한 계기가 없었던 것도 고려된다.

수유중 산모의 감정의 변화에 대한 조사: 젖을 먹이려고 하면 평화스럽고 안정된다는 항목에서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은 반수 이상인 51.0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에서는 반수 미만인 것은 마일스(M. Myles)³²의 결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반수가 되지 않음도 대상이 초임산부이었다는 점에 기인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젖을 먹이려면 부끄럽고 창피스럽다고 생각된다는 의견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 36.17%(17명),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에서 42.55%(20명)인데 이오리오(J. Iorio)³³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임신부의 절대적인 용기 여하에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용기를 갖도록 일깨워 주어야겠음으로 앞에서 제안한 산전 “어머니 교실”에서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어머니가 수유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며 의무라는 개념을 깊이 강조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된다.

유방의 모양이 미워질까 보아 우유를 먹이고 싶다는에서는 양집단이 각각 1명으로 극히 소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미국무성 아동국발행 “산전간호”³⁴(Prenatal Care)라는 소책자에는 모유수유를 시키거나 안시키거나 유방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여성의 미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성애를 느끼게 되어 수유시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집단이 모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슈미트(M. Schmitt)³⁵는 씨어스(sears)의 수명의 논문을 인용하였는데 신체적으로 모유수유가 부적당하다고 한 임신부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부적당이라 함은 바로 성문제(Sexual anxiety)를 가진 부인들이었다고 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는 비교할 만한 반응이 없음은 표현을 안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블레이크(F. Blake)^{36,37}는 미국의 부인들이 모유수유를 장려하지 않는 것은 미국 사회문화의 어떤 많은 인자들로 인하여 모유수유가 저해되고 있다고 하였다.

8. 분만후 율혈과 압통의 비교조사

분만 당일에는 양 집단간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나 분만후 제 1일에는 율혈에 관해서는 양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고 압통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어 산전유방간호를

30) E.Ziegel & E.Van Blarcom; 전제서, p.459.

31) E.Wiedenbach, 전제서, p.309 p.316.

32) Margaret Myles; 전제서, p.465.

33) Josephine Iorio; Breast-feeding Mothers help each other,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4 119 Oct, 1964.

34) Children's Bureau; Prenatal Care (U.S.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2), p.26.

35) Madeline H.Schmitt; 전제서, p.148.

36) Blake and Wright; Essentials of Pediatricnursing (7th edition), (Philadelphia-J.B.Lippincott Company 1963) p.183.

37) Florence G.Blake; The child, His parents, and the nurse, (Philadelphia, J.B.Lippincott Company 1954) pp.41-42.

실시한 임신부는 산후에 압통이 적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다. 분만후 제 2일 제 3일에는 양 집단간에 울혈이나 압통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핏츠패트릭(E. Fitzpatrick)³⁸에 의하면 울혈과 압통은 발생한지 24~48 시간이면 해소된다고 하였던바 본 연구에서도 분만후 제 1일에는 압통이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크게 나타났었고 제 2, 3일에는 의의가 없었음은 24 시간 후에 해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울혈에 관해서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측정에 착오가 있지 않은가 의심된다.

B. 결 론

정상분만을 한 초임산부 62 명을 대상으로 산전유방간호가 산후에 유방의 울혈과 압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초임산부 62 명중 산전유방간호를 시행한 임신부는 28 명이었고 산전유방간호를 시행하지 않은 임신부는 34 명이었는데 그중 산전진찰을 받은 임신부는 29 명이었으며 산전진찰을 받지 않은 임신부는 5 명으로 나타났는데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28 명은 모두 산전진찰을 받았으므로

가설 1. 산전진찰 및 간호를 받은 임신부는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였을 것이라하는 항목은 채택된다. 그리고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은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산전진찰을 받는 횟수도 25%가 더 많이 받았음은 산전진찰의 횟수의 유방간호의는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전진찰시에 유방간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책이나 자기 스스로 알아서 유방간호를 하였더라는 집단이 있음은 임신부 스스로의 뜻에서 산전진찰도 받았다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가설 2. 산전에 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신부는 산후 유방의 압통이 적을 것이라는 본 연구 결과 분만후 제 1일에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집단은 유방의 압통이 적게 나타났으며 분만당일 분만후 제 2일 제 3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가설은 가변롭게 채택되어 뒷받침되었으며 핏츠패트릭(E. Fitzpatrick)³⁹에 의하면 유방의 울혈과 압통은 발생한지 24~48 시간이면 소실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를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가설 3. 산전유방간호를 실시한 임신부는 산후 울혈의 빈도가 적을 것이라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 양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가 가슴둘레 측정, 젖망을(caked Breasts)수 채운 등을 참작하여 경, 중을 경하도록 되어 있었음으로 여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고려되어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야겠다.

C. 제 언

첫째 : 산후 입원기간이 1주일 정도로 연장됐으면 더 자세한 연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린힐(Greenhill)⁴⁰에 의하면 압통과 울혈은 산후 3-4 일에 생긴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4일째는 모두 퇴원하였으므로 단일 4일째 울혈과 압통이 나타났을 때는 측정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 유발울혈을 측정기 위하여 마련된 기구가 있었으면 줄자나 젖망을 수를 참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8) Fitzpatrick, Eastman, Reeder, 전제서, p.509.

39) Fitzpatrick, Eastman, Reeder, 전제서, p.509.

40) J.P.Greenhill: Obstetrics (Thirteenth edition) (Philadelphia, Saunders Company 1963) p.1053.

가이슬러(Geissler)⁴¹⁾는 율혈측정을 위해서 마련된 새로운 기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씌어진 논문에서 소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세째 :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하여 분만을 한 임산부는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았으므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즉 사회 문화 경제면에서 배경이 달라지면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방의 율혈과 압통을 조사하였으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이다.

네째 : 산부인과 외래진찰소에서 진찰을 받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유방간호를 지도할 목적으로 “사전 어머니 교실”을 설치하여 학생은 실습을 통하여 지도능력을 배우고 임산부의 유방의 율혈과 압통은 산후에 감소되어 모자보전이 증진되기 위하여서이다.

끝으로 가설검증에서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계속 연구하겠다.

Abstract

Experimental Study of Clinical Obstetric Nursing Education

Choi, Yun Soon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The integration of theoretical material in the classroom with clinical practice in the field is an important concept in nursing education. Nursing students at all levels need to acquire individual patient's needs, and applying creativity in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Problem solving and observation skills are important aspects in the development of nursing skills.

Nursing students during their clinical work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observed that the major difficulties experienced by new mothers centered around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changes. Breast engorgement and throbbing breast pain were the most frequent complaints by primiparas during the postpartum phase.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discomfort, and to devise appropriate nursing care, these complaints were experimented. Present study represents an attempt to evaluate the impact of antepartal care (including breast care) on the subsequent of breast feeding difficulties.

For the research purposes, hypotheses were made as follows:

1.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breast care and antenatal care attendance.
2. If primiparas practice breast care during their antenatal period, they will have less throbbing breast pain during the postpartum phase.
3. If primiparas practice breast care during their antenatal period, they will have less breast engorgement during the postpartum phase.

Method: The researcher selected two highly specialized nurses in maternity clinical ward. They checked mother's chest circumference on the top line of breast every morning including mother's fever, caked breast, and lymph nodes on axillae. These nurses checked mother's breast while they staying hospital for four days. The total number of primiparas were 62 during June 5th to July 15th in 1971 at the Severance Hospital. For 40 days among 62 members of new mothers, 28 of them had breast care during antenatal period. Rest of them did not have breast care during antenatal period.

Resul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first hypothesis was accepted that the group which had breast care during antenatal period,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antenatal care. If the mothers were more educated, the more anticipated to antenatal care including breast care.

For the second hypothesis, on the delivery day, there was no change on breast between two groups. On the first day of delivery, there were breast throbbing pains to the group who did not receive breast care, than the group who received the breast care. Therefore, second hypothesis was also accepted.

For the third hypothesis, there was no breast engorgeme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for the entire period. The third hypothesis was rejected.

참 고 문 헌

- Benz, Gladys S., *Pediatric Nursing*. St. Louis: Mosby Co., 3rd Ed., 1956, p.316.
- Blake, Florence G., *The Child, His Parents And The Nurse*. Philadelphia: J.B.Lippincott Co., 1954, pp.41-42.
- Breckenridge, Marian E. and Vincent E. Lee, *Child Development*. Philadelphia & London: W.B. Saunders Co., 1965, p.137.
- Browne, F.J. & Browne, J.C. McClure, *Antenatal and Postnatal Care*. J.&A. Churchill Ltd. London, W.I., 1960, p.52-53.
- Children's Bureau: *Prenatal Care*.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A child Care Publication, 1962, p.50, p.108.
- Eastman, Hellman, *Obstetrics*, New York: Appleton-Centry-Crafts, Inc., 1961, pp.348-507.
- Fitzpatrick, Eastman, Reeder, *Maternity Nursing*. Philadelphia: J.B.Lippincott Co., 1966, p.158.
- Fitzpatrick, Elise, *Zabriskies Obstetrics for Nurses*. Philadelphia: J.B.Lippincott Co., 1960, p.158.
- Georg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tlanta *Georgia Mother and Baby Book*, 11th Ed. 1952, p.11.
- Greenhill, *Obstetrics*. Philadelphia & London: W.B. Saunders Co., 13th Ed., 1965, p.1083.
- Greenhill, *Year Book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hicago: The Yearbook Publishers, 1942, p.267.
- Mohs, Emma Louise, *Principles of Home Nursing*. Philadelphia & London: W.B. Saunders Co., 2nd Ed., p.190.
- Mosher, Clelia, *Personal Hygiene For Wome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28, p.67.
- Myles, Margaret, *A Textbook for Midwives*. Edinburgh & London: E.& S.Livingstone Ltd., 1961, p.517.
- Van Blarcom, Carolyn Conant, *Getting Ready To Be A Mother*. New York: The Macmillan Co., 1931, p.65.
- Wiedenbach, Ernestine, *Family-Centered Maternity Nursing*. New York: G.P. Putnam's Sons, 1958, pp.163-164.
- Zabriskie and Eastman, *Handbook of Obstetrics*.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 7th Ed. 1943, p.177.
- Ziegel & Van Blarcom, *Obstetric Nursing*. New York: The Macmillan Co., 5th Ed. 1964, p.131.
- 최정자, 조산학 및 산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69.
- 정기간행물 :
- Birchfield, Marilyn, "A Mother's Views on Breast-Feed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3:88-90, 1964.
- Dyal, Lorraine and Kahrl, Julia, "When Mother Breast-Feed,"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7: 2555. Dec. 1967.
- Geissler, Natalie Jean, "An Instrument Used to Measure Breast Engorgement," *Nursing Research* Vo. 16, No.2, Spring, 1967.
- Iorio, Josephine, "Breast-Feeding Mother's Help Each Other,"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4:119, Oct. 1964.
- O'Keefe, Margaret, "Breast Feeding: Advice From A Nurse-Mother,"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3:61, Dec. 1963.
- Sarto, Joseph, "Breast Feeding: Preparation, Practice, and Professional Help,"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3:60, Dec. 1963.
- Schmitt, Madeline H., "Superiority of Breast-Feeding Fact or Fanc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0:1488, July, 1970.
- Trainham, Genevieve and Montgomery, J.C., "Self-Demanding Feeding For Babie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46:768, Nov. 1946.

전산초, "간호사업의 문제점과 미래상", 대한간호,
제 8 권, 제 2 호, 1969년, 14면—17면.
하영수, "한국인 초임산부의 음식습성에 관한 연

구",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제10집, 1967, 267
면—279면.